

제주도 민생 추경안 사상 첫 '심사 보류'

제주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고 폐회도 추경안 심사보류로 상징없이 교육청 예산안만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두고 심화된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 본회의 당일날 개회 시간을 세 차례나 연기했지만 협의가 불발되면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류'하는 조류의 상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지난 19일 오후 9시 40분 제4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심사보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 없이 각 상임위 심의를 거친 61건의 의안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교육

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처리됐다.

본예산 및 추경 예산안이 예결위 단계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당일날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도의회 본회의가 세차례 미뤄지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간 예산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특히 예산 줄다리기 과정에서 제주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53억원), 그리고 제주대버스터미널 신규 토지 매입 예산(88억원) 등에 대해 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영훈 지사가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난 본예산 의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지사의 '조건부 동의' 예산에 대해 앞으로는 '동의' 또는 '부동의'로만 밝히고 의회를 통과한 예산중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례 규정대로 진행하는 등 의회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예결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 150억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보류한 행자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매입 예산은 부대의견을 다는 방식으로 통과시켜 줄 것이라 예고도 나왔다. 더불어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 430억원대에 육박하던 삭감 규모를 200억원대로 낮추는 등 점점을 찾

는 듯 했으나 막판 합의가 불발되면서 본회의 시작 20분 전 열린 예결위 마지막 회의에서 제주도 추경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심사 보류됐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에 부대의견을 달고 처리하는 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국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본회의에서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류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도 추경 예산안은 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제4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는 22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추경 예산안 심사보류된데 따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들불축제 속의형 정책개발 추진도, 속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회의 개최

환경 논란 등이 이어지는 제주들불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속의형 정책개발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속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회의를 열고 들불축제에 대한 속의를 원탁회의 방식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4월 18일 청구인 749명이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 속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함에 따라 내용 검토를 거쳐 이날 속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 의장은 당연적으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맡으며, 주민공모를 통해 위촉된 8명을 포함해 속의형 정책개발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들불축제와 관련한 속의형 정책개발 청구권에 대해 속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원

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속의형 정책개발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원탁회의 방식을 통해 속의형 정책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속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는 청구권에 대한 주민참여의 적합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들불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제주시는 심의결과에 따라 원탁회의 방식으로 6개월 이내에 정책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원탁회의는 일반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테이블별로 토론하고 다수 참여자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 전체 의견을 재수렴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속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을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태윤기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 기사다 총리 내외 한인 원목 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 G7 정상회의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기사다 유코 여사가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목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고 있다.

박민식 후보자 4·3역사인식 도마 오르나

초대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주4·3에 대한 후보자의 역사인식이 검증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박 후보자가 제주4·3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공산주의에 맞선 자유수호의 전사'라 칭하는 등 편향적 역사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부위원회가 22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정부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박 후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국가보훈처장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5월 13일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글을 18번이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념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박 후보자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에 대한 4가지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친일파?

미국의 앞잡이? 분단의 원흉? 6·25 전쟁 도망자? 이 4가지에 대한 돌직구식 질문에 권위있는 미국의 학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국가보훈처가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개최한 '이승만 대통령 재조명 좌담회'에서 미국의 대표적 외교·역사학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을 강조한 점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면서다.

해당 기사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만이 부각됐고, 제주4·3 당시 이승만의 책임 등 그의 과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이념편향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 끝난 대통령을 끄집어 내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총 사업비 35억원 투입 남조로 구간 도로 확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남조로 물영아리 남측에서 수망리 마을 입구 1.9km 구간을 왕복 2차로

에서 3차로로 확장한다.

남조로(수망리~교래리) 구간은 제주 동부권 남북을 잇는 주요 노선으로, 1일 최대 1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성로와 남원지역 교통량 증가와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정체, 차량 상충 등 도로이용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으로 도로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토지주와의 보상 협의를 거쳐 12월 중 개선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양창현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남조로 도로개선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도로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도로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생활 속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정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식물 및 수목의 생리와 조경수 식재요령 및 관리, 정원관리 방법을 체득하여 녹색의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가꾸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본 교육과정은 개설 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과목명	교육시간	모집인원	수강료	비고
정원 가꾸기반	6월 ~ 10월 매월 4-5회(금) 오후 2시-5시 *현장실습시 변동 가능 *48시간	40인 (조합원 15명)	무료	정원의 이해 및 관리(전정, 토양, 병해충 등) 정원설계 및 조성

- 본 교육은 80%이상 수료시 수료증 제공
- 개강 : 2023년 6월 16일(금) 14시 ~ 17시
- 과목별 교육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http://jejusanjoo.c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교육과정 프로그램

- 모집기간 : 2023년 5월 18일(목) 10시 ~ 5월 26일(금) 17시 (휴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FAX접수, 전화접수 (신청서는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선발방법 : 접수마감 후 추첨

※ 주의사항

- 접수당일 전화상담이 많아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나 가급적 방문접수 및 FAX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정원아카데미 기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FAX 신청시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산림조합

교육문의 제주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 064)743-4883, 064)742-4883, FAX 064)744-4883

2023년도 좋은 일자리 환경구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좋은 일자리 환경구축 컨설팅사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대상으로 비용 절감과 인력난 해소 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비용 전액 무료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 ~ 2023년 6월 23일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신청방법 제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jef.or.kr)에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컨설팅신청 분야

인사·노무분야 (노무사)	세무·회계분야 (세무사)	법률분야 (변호사)
·노동관계 법령상 위법성 진단 및 개선 ·근로시간 분석에 따른 근무형태 조언	·세법 및 관련기준, 지침 등에 대한 위법 해소 상담 ·법인세, 부가치세, 원천세 등 조세 관련 세무 이슈 상담	·기업운영과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 법령해석 등 제공 ·신청기업의 법률자문 요청에 따른 상담등 법률서비스 자문

문의 Tel 064.751-2205-7 / Fax 064.751-2208 / 이메일 jefnoma@jef.or.kr

제주경영자총협회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0064@hanmail.net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집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